

單 獨 者 — 祈 禱

— 1973년을 보내면서 —

主 幹

I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건만 예수께서는 혼자 거기 계셨습니다……”(마태 14 : 22—23).

실존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에는 고독이라는 말이 범람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사회참여란 말이 등장해서 운동이니 사회정의 실현이니 하는 주장들이 고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간화란 말이 등장했는데 특히 최근에는 자연화란 말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화라는 것은 소위 기계문명이 인간을 기계의 부분으로 예속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인데 비해 자연화의 주장은 기계문명의 어떤 의미나 타협이나 조절로는 그 행포를 막을 길이 없으니 아예 그것을 송두리채 거부하자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다시 직결 시킴으로써 원초적인 메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은 어디서든 어떤 것과도 융화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자기와의 일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란 고독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인간은 사회 구조의 틀에 매일 수도 없으며 기계의 부분품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만들어 놓은 것에 안주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이 나를 속박한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부터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치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 하는 것은 한때 해본 流行語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때야 말로 이 사실을 몸으로 경험할 때입니다. 그것은 기술 사회화 됨으로 人間이 소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기체가 복잡해 질수록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한 보트에 달린 것처럼 權力體制가 中央集權化 되어 가는 새로운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의 창조설화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측면을 밝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즉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동반자를 만들어 쌍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원래 홀로의 存在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말한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것 만은 아닙니다. 人間은 더불어 살기 전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됩니다. 홀로 있음이 고독으로 변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동반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실체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녀는 본래 한 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녀는 하나가 아니고 각기 홀로임이 드러났읍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同時에 악마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홀로 받았읍니다. 이미 유혹 받아 변질된 하와는 아담을 자기 처럼 변질시키기 위해 유혹합니다. 이것은 원래 둘이 한 몸은 아니나 함께 하지 않고는 못 사는 人間을 나타냅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나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만납니다. 둘은 각기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로 따로 그 운명을 판결함으로써 그 갈 길이 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한 몸인 듯이 보이거나 어쩔 수 없이 둘이며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기 홀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의 황홀경에 빠졌을 때에는 이 홀로임(홀로성)이 극복된 듯이 착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다음 순간 오히려 홀로 있음이 더욱 뚜렷하게 깊어지거나 확대되어감을 느낍니다. 창조설화는 범죄 이후에 이들은 부끄러워서 자기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독성을 드러냅니다. 부끄러워서 자기를 감춘다는 것은 나를 남에게 공개하기 싫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깊은 비밀을 홀로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타인의 관여를 불허하고 동시에 그 책임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에게는 홀로 있음을 잊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내 분신과도 같아서 만일 그 친구가 없어진다면 나 자신도 설 자

리가 없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떠나고야 맙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나 홀로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는 나만이 처한 문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가령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람은 끝 없이 자기가 홀로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지은 죄의 결과는 역시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 어느 누구도 대신 저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또 병에 걸렸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나는 그 병을 홀로 앓아야 하고 그 불행을 홀로 감수해야 합니다. 설령 나 때문에 내 친구가 고통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고통이 감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存在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우리는 정말 궁극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한대로 죽음의 입문은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나는 홀로라는 사실은 은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義務, 우리의 日常的인 多事性은 우리의 고통함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意識的으로 나를 “大衆” 속에 예측 시킴으로 홀로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축제에 뒤따르는 적막 처럼 흥청거림과 바쁨의 다음에는 더욱 홀로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공연 뒤의 고통에서 피하기 위해 결국 제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모든 인기가 집중되었던 날의 밤같이 쓸쓸한 때가 없다는 것이 예술가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기가 싫어서 몸부림치는 한편 또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마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홀로 살고 싶다.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 더구나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하려고 할 때에는 홀로 있고 싶습니다. 혼자 걷고 싶고, 혼자 듣고 싶고, 그래서 혼자 산을 거닐다가 어떤 무언의 말을 홀로 듣습니다. 혹은 홀로 예술을 감상하고 생각에 잠깁니다. 이것은 확실히 일상성의 잡다한 언어나 관계에 휘말려드는 것보다 덜 외롭습니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잠든 밤이 그의 시간입니다. 꼭 무엇인가를 얻는 것도 아닌데도 웬지 좋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낮에 나와 그렇게 가깝고 짝을 수 없는 줄로 한테 얹혀 있다고 생각되던 식구들이 모두 자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지금의 문제, 고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딘지 쓸쓸합니다. 그러나 同時に 어떤 解放感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잃었던 나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홀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까닭은 현재는 정보(Information)와 교류(Communication)의 時代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각도로 내게 주입된 잡다한 것들이 문을 닫고 홀로 있는 내 뇌리에 파고들어 나를 간섭합니다. 이것은 나를 더욱 고독하게 합니다.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고독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고독은 자진해서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Tillich는 고독(Loneliness)는 적막(Solitude)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홀로 있음을 피하지 말고, 홀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그가 나갈 길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이상의 생각들은 예수의 기도를 理解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예수는 하루 종일 군중에 싸여 지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 제자들도 가야할 行先地로 먼저 보내고 무리들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홀로” 계셨습니다. 고독한 傳記的 斷片입니다. 이 같은 기록이 또 한 곳에 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마가 1:35). 외딴 곳이란 원 뜻은 황야(a desert place)입니다. 산이거나 황야거나 저녁 또는 새벽에 간 것은 人跡을 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mono) 계셨다고 합니다. 이같은 장면은 첫 시험 때에도(그 때는 황야에 홀로 계셨다), 그리고 겟세마네(이 때는 산이다)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기도할 때에 풀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고 했습니다(마태 6:6).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홀로 있었을까? 왜 사람들, 사랑하는 弟子들마저 떼어놓고 홀로 있었을까? 왜 人間들을 피했을까?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기도와 “홀로”가 연결 될까요?

요한복음에는 “저들은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산으로 갔습니다”(7:53, 8:1)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 사람들과 어울려 웅성거리다가 저녁에 제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리와 갈라진 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에 돌아가는 곳이 제 집이라면 예수의 집은

“山”이었읍니다. 山! 그것은 “홀로”의 집입니다. 홀로 있음이 바로 그의 집이었읍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 집으로 간 것입니다. 홀로의 세계! 그것이 그의 本郷입니다.

홀로 있음이 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自己에게로 환원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인간의 認定과 또 그들에게 對한 내 공로에서 내 同一性을 찾는 삶에서人間을 떠나서 홀로 있음은 그런 것에 실려있던 自己를 되찾는 일입니다. 기도는 單獨者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와 너 또는 저들과의 관계이기 전에 자기가 자기와 關係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남을까? 사람과의 관계 또는 내 所有와의 관계에서 살아 있다고 느끼는人間이 그런 것을 모두 빼어버릴 때 무엇이 남을까? 空虛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다음 축제 다음 홀로 있을 때 그토록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읍니다. 있는 것은 적막뿐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나! 텅빈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것을 지시할 때가 가장 겸손한 순간입니다. 그 때 있을 수 있는 것은 새 것에 대한 복종의 자세뿐입니다. 이미 스승도, 추앙의 대상도, 또는 무엇을 했다는 의식도 버린 상태! 이것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फल장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外界와의 차단을 뜻합니다. 그 때 은밀한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기도! 그것은 적막속에서 가능합니다.

기도! 그것은 고독한 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까닭은 내가 나와 더불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空虛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 人間과 차단하고 홀로 山에 올라갔읍니다. 철저한 고독! 그것 자체가 벌써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고독을 찾아 홀로 있으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는 弟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에 먼저 보냈읍니다. 먼저 보냈다 함은 저들과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홀로 계시는 것은 다시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홀로 있음으로 자기를 찾은 그는 하나님을 찾았읍니다. 하나님과 대좌함으로 그는 사람들과의 本來 관계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弟子들은 홀로가 했습니다. 저들은 서슴없이 자기들만으로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저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저들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들은 정말 홀로 있음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자기들의 힘의 한계를 보고 떨고 있었읍니다. 예수는 홀로 있는 뒤 바로 이 풍랑속에서 외로히 싸우는 저 人間들에게로 向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그들은 전혀 새로운 그를 발견했읍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어제 함께 있던 그는 아닙니다. 오래히 함께 있는 그도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감격적일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있음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말 “선물”로 받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III

多難한 一年이 저물려고 합니다. 지난 一年間에 우리는 얽히고 설킨 人間關係에서 지쳐있읍니다. 우리에게는 不信이 생겼고 不義와 不正이 우리의 日常性의 一部가 돼버렸읍니다. 이 복잡한 關係속에서 나는 나 自身과의 關係를 잃어버렸읍니다. 나는 누구냐는 물음보다 나는 무엇이냐라는 기능으로서의 나만 물어왔읍니다. 따라서 무엇이 良心的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조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方向意識도 잃어버렸읍니다. 그러므로 人間關係도 그 尺度를 잃게 됐읍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이지러진 마음에서, 실망의 底邊에서 자기를 가누지 못한채 그 다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는 동안 이제는 原來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악순환의 鏈에 몸을 싣고 있게 됐읍니다. 그래서 不信은 그 다음의 不信을, 흥분은 그 다음의 흥분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됐읍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는다면 새해란 오늘 의 延長밖에 될게 없을 것입니다.

낡은 해는 모두 清算하고 새해를 새로운 希望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家計簿를 정리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잘못을 權利를 도로 찾는 등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점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잃은 自身과의 關係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外界와의 關係를 단절하고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홀로 있음, 孤獨! 그것이 모든 倫理의 거점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붙는 속에서 무엇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지나간 다음 조용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른바 大勝利를 거둔 절전속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무너지는 소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고독할 때 비로소 가늘게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함은 自己를 발견하는 일과 同時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同時에 그의 형제의 신음 소리, 그 문제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참된 倫理的인 명령은 고독속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파도를 만난 그 弟子들 처럼 구조를 청하는 아우성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慢性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친 것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너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나를 喪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兄弟들의 부르짖음에 예민한 自己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은 나의 비명입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은 不吉한 징조입니다. 그것은 自我 喪失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잃은 나를 찾아야겠습니다.

이 나를 찾는 길, 그러므로 잃은 兄弟들을 도로 찾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는 풀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單獨者가 돼야 합니다.

■ 最高水準의 神學研究論文集 ■

出刊 神學思想Ⅲ輯

248면 값 500원

韓國神學研究所

서울 中區 墨井洞 18 學生會館 312호. 52-2964